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 개최

17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주요 상권 20여 곳에서 다양한 할인행사·공연 등 추진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전통시장 상점가 등 주요 상권 20여 곳에서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발맞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리는 이 축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꿈을 상징하는 '드림(Dream)'을 주제로 경품 및 할인행사, 플라마켓 및 장터, 골목상점가 꾸미기 등 지역 주민과 상인이 중심이 되는 '전주형 세일행사'로 꾸며진다.

구체적으로 △마감세일 및 문안이 세일 등 깐이드리 △영수증 이벤트 및

메뉴 할인행사 등 나뉘드리 △영세점포에게 유명 셰프의 비법을 전수해주는 가치드리 △식당 가족할인, 동네골목 소통의 장 등 가족드리 등이 다채롭게 추진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는 대표 상품 할인 판매, 마감 특가세일 등 자체 할인행사는 물론 이와 함께 각 시장·상점가별 특색에 맞는 패션쇼와 김장 체험 행사 등 공연·체험행사가 마련돼 이번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특히 남부시장 청년몰에서는 개장 10주년을 맞아 청년몰의 미래를 그려보는 '청년몰 2.0 포럼'이 진행되며, 북콘서트와 재즈·포크 공연 등도 만

나볼 수 있다.

시는 지난날 축제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해 찻마중길 상가 등 주요상권 4개소와 혁신도시 상가 등 골목상권 6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9개소를 접수한 상태로, 최종 심사를 통해 참여 단체를 확정된 뒤 축제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는 데 이번 축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지체있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위로와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현 총력

디지털트윈 플랫폼·XR·메타버스기업 집적시설 구축 등 추진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사람을 향한, 시민행복 중심지 스마트전주'라는 비전 아래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경제도시' △시민안전 최우선 '사람중심 안전도시' △첨단 ICT기술로 자연과 융합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시민과 손잡이 편안하고 '즐거움 문화도시' 등 4대 목표, 22개 단위사업을 골자로 한 전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지난 6월 국토부 승인까지 완료했다.

현재 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도시재생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산업 기반 마련 △디지털 경제기반 확

충 등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시와 LG가 전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내년 5월 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구축되면 건축인허가, 도로굴착, 산업단지 오염도 모니터링 등의 행정업무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분야 의사결정 및 도시문제 시뮬레이션 도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역사권 찻마중길에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XR스튜디오를 올해 구축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VR·AR센터를 XR지원센터로 확장해 기금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 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공모로 준비 중인 덕진권

역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는 XR·메타버스 기업 집적시설과 XR기술 전시·체험 인프라를 조성해 다양한 실감콘텐츠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디지털 경제기반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공모에 선정된 시는 약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커머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2월에는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도울 전주형 공공배달앱도 도입키로 했다.

향후 시는 지역 ICT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국토부 공모과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다음 달 6일 라한호텔에서 메타버스 시대 가상도시를 선도하기 위한 '2021 전주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를 연다. 이 행사에는 민·관·학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트윈·XR, 3D 버추얼 시티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며, 스마트시티 정부 정책 및 신기술 트렌드도 공유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안전망 학교지원단 회의 열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11일 센터 교육실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 13개 학교지원단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소년안전망 학교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내 각급 학교장들로 구성된 학교지원단 위원들은 학교별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

항과 통합 지원체계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모색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진로 직업 체험인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Dream Job School'과 학습동기 강화프로그램 'Jump Up',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아리·연합회 활동 등 올해 총 161회에 걸쳐 운영된 프로그램에 8002명이 참여했던 성과들도 공유했다. /김윤상 기자

김항운 학교지원단장(전주서곡중학교장)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주시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 상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와 청소년안전망 간의 연계를 활성화해 위기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꼭 가봐야 할 도시' 전주 홍보영상 인기 뜨겁다

한국관광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2' 전주편, 조회 수 222만 회 기록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매력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인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2'의 전주편이 한국관광공사 해외 홍보 유튜브 계정(Imagine Your Korea)에 지난 4일 공개된 이후 조회 수가 222만 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편은 다른 지역의 홍보영상과는 달리 외국인 출연진의 한복을 입은 모습과 전주의 경기전, 한옥마을 등의 풍경이 어우러져 한국적인 미가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전주로 대변되는 판소리인 '태평가'가 트렌디하게 변모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영상미도 뛰어나지만 자연과 한옥,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한복까지 한 영상 안에 모든 게 담겨있어 한국 홍보영상으로 너무 찰떡이네요", "한복의 컬러풀함



전정어게임 캠페인 모습.

과 디자인적 우월성, 한식, 한옥과의 매치에 압도당하고 갑니다" 등의 좋은 반응들로 가득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가 운영 중인 '비즈니스(Visit Jeonju)'라는 SNS 플랫폼은 팔로워가 1만7000명에 달할

만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10월에 진행됐던 '전정어게임 캠페인'은 외국인들에게 전주의 전통문화 및 놀이를 소개하면서 조회 수 3만 회, 좋아요 1000개를 받으며 지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캐나다 여행관련 사이트인 '류리어시티'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서울, 부산에 이어 전주 소개되기도 했다.

향후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미국 CNN, 영국 BBC 등과 같은 해외 우수 미디어에 이어 캐나다,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전주농업인단체연합회는 11일 삼천동 전주기점농이전수관에서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26회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농업인 권익 향상·발전 기여 유공자 전주시장 표창패 등 수여

전주시와 전주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최무열)는 11일 삼천동 전주기점농이전수관에서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당초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대규모로 진행돼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한의 농업인단체 대표들

과 수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전주시장 표창패와 농업인단체연합회장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힘써온 이남숙·이운자 전주시의원과 유공

공무원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최무열 연합회장은 "이 자리를 빌려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전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주시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은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